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

Differences in Time Satisfaction and Time Deficit to the Type of Parental Tim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김세리¹ 이강이²

Kim Seri¹ Lee Kangyi²

ABSTRACT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type of parental time, (2) to investigate the family'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parental time types. (3),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time satisfaction and time deficit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ental tim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14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391 time diaries). Data were analyzed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multinominal regression, and ANOVA.

Result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time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non-participation, play-centered, physical care-centered, unspecified group.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epended on children's age, mo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income, and dual earner families. Third, time defic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lay-centered and non-participation type.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regarding child care and labor were suggested.

key words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type of parental time, parental time, time satisfaction, time deficit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됨.

¹ 제1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²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 kangyil@snu.ac.kr)

I. 서론

최근 '워킹맘'의 양육 관련 이슈는 많은 매체와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령, 취업모의 34.6%가 양육과 가사에 대해 과중함을 느끼고 있으며(유희정 외, 2009), 취업을 중단한 경우 그 이유를 자녀 양육과 관련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김은설 외, 2015).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자 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도 대비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e-나라지표, 2017). 이와 더불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 또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등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의 취업 중단율이나 출산을 제고에는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육아지원 제도의 주수요자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가 양육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맞벌이 부부는 부모 모두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전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보니 과중한 가사노동의 압박 및 부부 간의 가사노동 협력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성역할 지위가 동등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 압박과 경제활동 중단이 여성에게 반복되는 현상은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상을 여성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곧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을 낳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부모의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이 부모-자녀 관계와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낳으며 여전히 여성의 역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과 가족 삶 속에서 부모의 시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된 시간은 자녀발달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자원이 된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인간 생활 및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원료 등으로 정의하고, 지금까지는 인적, 물적 자원이 인간 삶에 필요한 주된 자원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시간’도 하나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Colman(1988)은 아동을 양육하고 발달시키는 것 또한 사회의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자원 투자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이 때 부모의 투자가 경제적, 물질적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 또한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임을 역설하였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양육시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볼 때, 아동학 분야에서도 자녀돌봄시간을 자녀발달의 주요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의 시간자원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생활시간을 통해 개인의 생활 영역을 파악하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삶을 어떻게 구조화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소영, 진미정, 2015). 가족의 생활시간 사용은 생활 영역을 시간량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개인에게 확보된 시간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가족생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제언하는 데에 적합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역할 기대가 높고,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활시간 연구는 여성 정책 및 보육 정책을 제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가운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Hsin & Felfe, 2014; Huston & Rosenkrantz Aronson, 2005; Kelly & Barnard, 2000). 특히 구조화되고 인지적 상호작용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니의

자녀가 인지적으로 더욱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Del Bono, Francesconi, Kelly, & Sacker, 2016).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이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발달 전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자녀에게 투입된 시간량과 자녀의 발달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시간이 자녀의 발달을 위한 하나의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는 자원의 투입량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자녀돌봄시간이 하루 일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즉, 세부 자녀돌봄 행위에 따라 자녀돌봄시간 사용을 유형화하는 것은 개인이 시간자원을 사용하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하루 동안 특정 돌봄 행위가 일어난 시간의 절대량을 측정하여 돌봄 시간을 탐색하였다(Booth, Clarke-Stewart, Vandell, McCartney, & Owen, 2002; Hsin & Felfe, 2014; Huston & Rosenkrantz Aronson, 2005; 박은정, 이성림, 2013). 그러나 특정 행동이 발생한 시간의 절대량만을 계산하게 된다면 그 총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특정 행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행위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제로섬 특성에 근거하여 Craig(2006), Sullivan과 Gershuny(2013)는 시간을 비율로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자녀돌봄시간의 총량 중 세부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게 된다면 세부 행위별로 자녀돌봄시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차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율로 구성된 시간을 통해 자녀돌봄시간을 유형화하면 자녀돌봄시간 사용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시간 사용의 특성 및 자녀 발달과의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녀돌봄의 세부 행위별 시간량만을 계산하였을 때, 개인마다 자녀돌봄시간의 총량이 다르게 됨으로써 개인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자원 관리(time management)의 집단별로 특성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시간 사용의 패턴이 개인의 삶이나 가족 발달에 가치를 지니는지 제언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국내 생활시간 연구에서 자녀돌봄시간을 탐색하는 데에 2014년 이전의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자료는 2014년부터 10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시간일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녀돌봄의 행위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자녀돌봄 행위 분류가 연령에 상관없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생활시간자료에는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와 10세 이상 자녀돌봄 행위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 어느 연령의 자녀를 돌보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구체화하여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가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어 조사항목이 추가된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연령의 특징에 맞는 행위별 시간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개인차를 가져온다. 선행연구(주은선, 김사

현, 김민성, 2014; Coverman, 1985; Schwartz & Mare, 2005)에서는 주로 시간을 자원으로 보고,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서의 시간이 어떤 조건에서 극대화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회 계층적 특성과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Esping-Andersen(2009)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에게 투자하는 부모의 능력차이 또한 커지며, 가족의 취약성이 가족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취업여부, 소득,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계층적 사회인구학적 요소는 가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돌봄에 더 적은 시간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Huston과 Rosenkrantz Aronson(2005)의 연구에서는 주중과 주말에 자녀돌봄시간 사용 중 일부 행동 범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자녀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모와 전업모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의 경향성을 비교하기에는 양적 비교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형화된 자녀돌봄 사용 시간은 개인이 제한된 자녀돌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절대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개인 삶에 시간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상을 확인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취업 유무에 따라 시간사용의 유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유사한 맥락으로 소득 또한 주목해야 할 영향요인이다. 가정의 소득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이나 가정의 여가시간 사용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밝혀져 왔으나(박은정, 이성립, 2013; 김소영, 진미정, 2015), 다른 가사노동과 달리 자녀돌봄은 전적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김소영, 2016) 시간 사용의 절대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녀돌봄시간 사용의 총량, 즉 절대량이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으나 자녀돌봄 행위 중 특정 행위는 소득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Dowsett, Huston, Imes, Gennetian(2008)의 연구에서는 고소득 가정의 아동은 민감하고 인지적 자극이 많은 돌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meduzzaman과 Roopnarien (1992)이 3-5세 아동의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초점을 두어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소득은 어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 형태 및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가령,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의 경우 시간 빈곤에 대한 지각을 더 많이 하며, 자녀의 교육과 노동에 있어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 et al). 어머니의 소득이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경제적 특성과 자녀돌봄의 경향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녀돌봄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학력 부모일수록 자녀를 위한 학습적인 행위나 교육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llivan, 2010),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양한 교육적 자극을 자녀에게 주는 것에 관심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높은 교

육수준을 지닌 가정의 경우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며(Bailey, 1993), 자녀의 학업적 성과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Marsiglio, 1991). 이러한 특성은 자녀와의 생활 및 놀이에도 관심사가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돌봄시간 사용 패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두는 바가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돌봄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여 사용할 것인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주와 김진옥(201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내 행위 특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연령을 꼽았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영유아 자녀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탐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아기와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진미정과 이윤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활시간 양태를 분석한 결과, 만0세, 만1-2세, 만3-4세의 하루 일과 중 수면, 식사, 위생 등의 생리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린 연령인 만0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이라 할 지라도 연령에 따라 발달 특성 및 그에 따른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의 양태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간사용만족감은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정도를 의미(박은정, 이성립, 2013)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공유 시간 사용 유형, 가사노동 참여 행위 등에 따라 시간사용만족감을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시간 압박감을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으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였다(차성란, 2006).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시간사용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는지 따라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감 지각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시간부족감은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김외숙, 2012)로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기혼자 혹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들고 있는데(Milkie, Mattingly, Nomaguchi, Bianchi, & Robinson, 2004), 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 사용과 시간부족감이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부족감 지각 정도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같은 자녀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일지라도 어떤 유형이 시간부족감을 덜 지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아버지, 취업모와 같이 특정 특성을 지닌 집단의 시간사용을 탐색하는 것에서 벗어나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탐색을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의 유형화를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어머니들의 생활시간 사용의 패턴 및 유형 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하게 하며, 이들의 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개인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제4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운데 시간대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0분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손애리, 2000). 2014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12,750 가구의 만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한 바, 가구원 중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시간일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중과 주말의 돌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일지 가운데 임의 선택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주중 일지만을 선정하였다. 가구 일련번호 당 일지 개수를 확인하여 한 가구에서 작성된 일지가 2개보다 많은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및 만 나이를 살펴보고 미취학자녀의 어머니가 아닌 경우로 추측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돌봄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고은주, 김진옥, 2016)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만을 선정하여, 부모와 자녀 1명이 포함된 3인의 가구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391개의 일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연구도구

1) 자녀돌봄시간 사용

2014년도 생활시간자료는 10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자녀돌봄 행위를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와 10세 이후 자녀돌봄 행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에 포함되므로 10세 미만 자녀돌봄 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시간을 자녀돌봄시간 변수로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에 사용한 시간의 행동 영역은 총 5개이다. 하루 동안 해당 활동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한 전체 시간을 합산하여 1일 총 해당 행위 사용 시간량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행위인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가 주행동으로 기록된 시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시간일지에서는 동시행동 여부에 따라 주행동과 함께 부행동을 같이 기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행동을 함께 자녀돌봄 사용 시간으로 다루게 될 경우, 주행동 기록의 총합이 총 24시간으로 동일한 것과 달리 부행동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행동 시간을 분석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부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간일지는 개인이 각자 자신의 생활시간 사용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지각의 정도가 주행동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행동으로 기입된 아이 돌보기 시간 사용 행위를 자녀돌봄시간 사용으로 보았다.

(1) 신체적 돌보기

만 10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가구원을 위하여 먹이거나, 입히고, 씻기는 등 돌보는 행동으로 아이 먹이기, 채우기, 돌보기, 신체 손질, 목욕시키기, 옷입히기, 깨우기, 약 먹이기, 상처 치료, 화장실 데려가기, 기저귀 바꿔주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아이 가르치기

만 10세 미만의 아이 학습시키기 또는 기관 이용을 위한 준비물 챙기기 등의 행동으로 아동을 훈육하는 행동을 포함한 가르치기, 숙제 봐주기, 공부시키기, 통신문 확인 등에 이에 해당한다.

(3)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만 10세 미만의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를 함께하는 행동으로 음악듣기, 비디오 틀어주기, 종이접기, 흙놀이, 가베, 게임하기, 안아주기, 업어주기, 생활 대화하기 등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를 모두 포함한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4) 간호하기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모든 활동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는 행동, 병원 데려가기, 해열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기타돌보기

아이의 등하원과 관련된 기다리기, 데려오기, 기관 행사 참석, 아이 친구 초대장, 생일 선물 포장 돕기, 학교 및 유치원 선생님과 대화, 아이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개인 및 가정 특성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 어머니 월평균 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을 주 요인으로 삼았다.

먼저,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와 홀벌이를 구분하여 맞벌이인 경우 1, 홀벌이인 경우 2로 코딩하였다. 2016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09만원 정도로 보고된 바(통계청, 2016), 250만원을 기준으로 250미만인 경우를 1로, 250만원 이상인 경우를 2로 코딩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를 1, 2년제 대학 이상을 2로 코딩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0-2세 자녀를 둔 경우를 영아로 보고 1, 3-5세 자녀를 둔 경우를 유아로 보고 2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시간사용만족도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날 응답자가 지각한 1일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만족한다’(1점)~‘매우 불만족한다’(5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시간사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시간부족감

시간부족감은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김외숙, 2012)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1점)~‘항상 여유있다고 느낌(4점)’의 4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한 것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 행위 별로 평균 시간을 산출함으로써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행위 시간을 표준화하여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각 행위별 시간량을 계산하여 군집분석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주행동의 총량이 24시간으로 동일한 것에 반해, 자녀돌봄시간은 개인마다 시간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화를 시도할 때 각 행위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raig(2006)와 Sullivan과 Gershuny(2013)이 시간을 비율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포함되는 각 행위를 표준화하여 군집분석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준화는 각 변수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통해 점수 범위를 0-1 사이로 변환하여 행위별 동등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유형별 세부 행위 시간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개인적 특성이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시간부족감 및 시간

사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의 경우, Scheffé 사후 검정을 먼저 실시하였으나, 유형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Duncan 사후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개인 및 직업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68.8%가 30대에 해당되며, 평균 연령은 3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은 영아에 해당하는 0~2세가 63.2%, 유아인 3~5세가 36.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고용 여부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모인 경우가 59.3%로 취업 중인 어머니 40.7%보다 약간 더 많았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 미만 경우가 88.2%로 250만원 이상인 11.8%보다 훨씬 더 높았다. 직업 특성을 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91)

변수	빈도(%)/Mean(SD)
응답자의 연령대	
20대	63(16.1)
30대	269(68.8)
40대	40(10.2)
50-60대	19(4.8)
응답자의 평균 연령	34.9(7.3)
응답자의 자녀 연령	
0~2 세	247(63.2)
3~5 세	144(36.8)
직업지위	
취업모	159(40.7)
전업모	232(59.3)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345(88.2)
250만원 이상	46(11.8)
직업(무급노동 포함)	
전문직/관리직	70(17.9)
사무직	50(12.8)
서비스/판매직	31(7.9)
농림/기능/단순노무직	17(4.3)
전통적 성역할 태도(point range: 1~4)	3.13(0.8)

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17.9%, 사무직이 12.8%, 서비스·판매직 7.9%, 농림·기능·단순 노무직이 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 점수는 3.13점으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2.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경향 및 유형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주중에 자녀돌봄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측정한 결과, 세부 행위별 자녀돌봄시간 사용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아이를 먹이거나, 재우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과 같은 신체적 돌보기 행위는 1일 평균 108.0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숙제 봐주기, 공부시키기, 가르치는 행위는 1일 평균 2.8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돌보기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이 최대 650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르치기는 최대 시간으로 6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나 놀아주는 행동은 평균 59.51분을 사용하며, 최대로 사용하는 경우 370분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간호하는 행동은 평균 4.91분의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최대 360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거나 데려오는 것, 아이를 돕는 것, 아이가 놀이하거나 밥 먹는 것을 지켜보는 행동 등 기타 돌보기 행동은 1일 평균 13.02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행동분류별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경향 (N = 391, 단위: 분)

행동분류	Mean	SD	최소값	최대값
신체적 돌보기	108.03	103.07	.00	650.00
가르치기	2.81	9.32	.00	60.00
책읽어주기·놀아주기	59.51	65.60	.00	370.00
간호하기	4.91	24.49	.00	360.00
기타돌보기	13.02	21.15	.00	120.00

신체적 돌보기,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에 사용한 다섯 가지 차원의 시간을 기준으로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세부 행위별 시간 배분 형태에 따라 4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유형을 4개로 선정하였을 때 각 집단별로 조사대상자가 10%이상 분포하였고, 활동별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4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기타 돌보기를 하는 시간이 길다는 특성을 통해 ‘기타 돌봄 중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유형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책 읽어주기·놀이하기 행위 시간이 길다는 특성을 지녀 ‘놀이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다섯 가지 차원의 모든 행위에서 사용한 시간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반적 비참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네 번째 유형은 다른 행위에 비해 신체적 돌봄 시간이 길게 나타나 ‘신체 돌봄 집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집단은 ‘전반적 비참여형’으

로 총 391명 가운데 50.1%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다음으로는 22.3%를 차지한 ‘놀이 중심형’, 15.1%인 ‘기타 돌봄 중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집단은 ‘신체 돌봄 집중형’으로 전체의 12.5%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각 행위별 시간 사용에 대해 군집 간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분석을 한 결과, 신체적 돌보기 시간 사용에 있어서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놀이 중심형’ 유형 또한 ‘기타 돌봄 중심형’과 ‘전반적 비참여형’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221.97, p < .001$). 아이 가르치기 행위 시간은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이 ‘기타 돌봄 중심형’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94, p < .001$).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시간은 ‘놀이 중심형’ 유형이 다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돌봄 중심형’과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은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 비참여형’ 유형이 놀아주기 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 = 182.76, p < .001$). 아이를 간호하는 시간은 거의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4.27, p < .01$). 아이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기타 돌보기 행위 시간은 ‘기타 돌봄 중심형’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 중심형’ 유형과 ‘전반적 비참여형’ 유형이 ‘신체 돌봄 중심형’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38.24, p < .001$).

표 3.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

(단위: 표준화된 평균 시간)

	N(%)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합계	391(100)					
군집 1	59(15.1)	.11 ^a	.09 ^a	.13 ^a	.01 ^a	.46 ^a
군집 2	87(22.3)	.19 ^b	.02 ^{ab}	.41 ^b	.01 ^a	.04 ^b
군집 3	196(50.1)	.09 ^a	.06 ^{ab}	.06 ^c	.01 ^a	.06 ^{bc}
군집 4	49(12.5)	.48 ^c	.00 ^b	.16 ^a	.05 ^a	.01 ^d
F value		221.97***	3.94***	182.76***	5.27**	338.24***

** $p < .01$, *** $p < .001$.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함

3.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 관련 요인

주중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형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기타 돌봄 중심형’ 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아동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보다 ‘기타 돌봄 중심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O.R = 11.84, p < .001$).

‘놀이 중심형’ 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에 속할 확률보다

‘놀이 중심형’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O.R = 5.53, p < .001$),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놀이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O.R = 1.41, p < .05$).

‘전반적 비참여형’ 유형은 맞벌이 여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 아동의 연령이 해당 유형을 구분해주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에 해당하거나($O.R = 3.06, p < .05$),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O.R = 1.84, p < .001$) ‘놀이 중심형’ 유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기타돌봄 중심형’이나, ‘놀이 중심형’ 유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O.R = 1.64, p < .01, O.R = 1.35, p < .01$). 또한 맞벌이가정일수록($O.R = 4.14, p < .05$) 혹은 아동의 연령($O.R = 10.15, p < .001$)이 높아질수록 ‘신체 돌봄 중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신체 돌봄 중심형’ 유형을 구분해주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O.R = 1.93, p < .01$).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신체 돌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중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 관련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O.R	Wald
참조집단	비교집단				
전반적 비참여형	기타 돌봄 중심형	맞벌이 여부	-.01	.99	.000
		월평균 소득	-.50	.61	12.147***
		자녀연령	.15	1.18	2.287
	놀이 중심형	교육 수준	.24	1.27	2.047
		맞벌이 여부	-1.12	0.33	5.865*
		월평균 소득	-.30	.74	8.601**
		자녀연령	-.61	.55	27.825***
		교육 수준	.35	1.41	4.506*
		맞벌이 여부	-1.46	.23	5.305*
	신체 돌봄 중심형	월평균 소득	-.15	.86	1.755
		자녀연령	-2.32	.10	36.863***
		교육 수준	.66	1.93	7.260**
기타 돌봄 중심형	놀이 중심형	맞벌이 여부	-1.11	.33	3.49
		월평균 소득	.19	1.22	1.41
		자녀연령	-.76	.47	32.81***
	전반적 비참여형	교육 수준	.11	1.11	.30
		맞벌이 여부	.01	1.01	.00
		월평균 소득	.50	1.64	12.15***
신체 돌봄 중심형	전반적 비참여형	자녀연령	-.15	.86	2.29
		교육 수준	-.24	.789	2.05
	신체 돌봄 중심형	맞벌이 여부	-1.46	.23	3.75
		월평균 소득	.34	1.41	3.82
		자녀연령	-2.47	.08	40.36***
		교육 수준	.42	1.52	2.39

표 4. 계속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O.R	Wald
참조집단	비교집단				
놀이 중심형	기타 돌봄 중심형	맞벌이 여부	1.11	3.03	3.49
		월평균 소득	-.19	.82	1.41
		자녀연령	.76	.90	.30***
		교육 수준	-.11	.90	.30
	전반적 비참여형	맞벌이 여부	1.12	3.06	5.87*
		월평균 소득	.30	1.35	8.60**
		자녀연령	.61	1.84	27.83***
		교육 수준	-.35	.71	4.51*
	신체 돌봄 중심형	맞벌이 여부	-.35	.71	.27
		월평균 소득	.15	1.16	1.31
		자녀연령	-1.71	.18	20.58***
		교육 수준	.31	1.37	1.75
신체 돌봄 중심형	기타 돌봄 중심형	맞벌이 여부	1.46	4.29	3.75
		월평균 소득	-.34	.71	3.82
		자녀연령	2.47	11.84	40.36***
		교육 수준	-.42	.656	2.39
	놀이 중심형	맞벌이 여부	.35	.41	.27
		월평균 소득	-.15	.86	1.31
		자녀연령	1.71	5.53	20.58***
		교육 수준	-.31	.73	1.75
전반적 비참여형	맞벌이 여부	1.46	4.32	5.31*	
	월평균 소득	.15	1.17	1.76	
	자녀연령	2.32	10.15	35.86***	
	교육 수준	-.66	.52	7.26**	

* $p < .05$, ** $p < .01$, *** $p < .001$.

4.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감 및 시간 부족감

구분된 네 가지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따라 생활과 시간사용에 관련된 만족도 및 부족감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시간사용만족도 및 시간부족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간사용만족도에 있어서 네 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

표 5.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감 및 시간부족감

변수	기타돌봄 중심형	놀이 중심형	전반적 비참여형	신체적 돌봄 중심형	F
시간사용만족감	3.31	3.02	3.17	3.04	1.80
시간부족감	3.22 ^{ab}	3.10 ^a	3.33 ^b	3.25 ^{ab}	2.67*

* $p < .05$.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함

견되지 않았다. 반면, 시간부족감은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놀이 중심형 유형과 전반적 비참여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 = 2.67, p < .001$), 전반적 비참여형이 놀이 중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많이 지각하였으며 다른 유형들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 시간대 자료 중 0세부터 5세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자녀돌봄시간을 유형화하고 개인 및 가정 특성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별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은 ‘기타 돌봄 중심형’, ‘놀이 중심형’, ‘전반적 비참여형’, ‘신체 돌봄 중심형’의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중 연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군집은 ‘전반적 비참여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 중심형’, ‘기타 돌봄 중심형’, ‘신체 돌봄 중심형’ 순으로 분포가 나타났다. ‘전반적 비참여형’은 신체적 돌보기,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로 구분되는 자녀돌봄의 세부 행위 전반에서 낮은 참여시간을 보였으며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 자녀돌봄시간에 투자하는 개인 시간의 분포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전반적 비참여형’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놀이 중심형’이다. ‘놀이 중심형’은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음악듣기, 대화하기 등의 행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아이를 즐겁게 해주거나 놀이에 필요한 준비활동 등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아이가 놀이하러 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가족 앞에서 재롱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놀아주기 행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와 직접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위해 직접적인 준비 행위만이 놀아주기 행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돌봄 중심형’은 전체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놀아주기, 간호하기 외에 기타 다른 돌봄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 유형이다. 기타 돌봄 행위에는 자녀의 기관 이용을 위해 차량을 기다리거나 직접 등·하원을 하는 행위, 자녀의 기관에 부모참여 행사에 참석하는 것, 아이의 안전을 위해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타 돌봄 행위에는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행위보다는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 혹은 자녀와 관련된 일 보기가 주를 이룬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유형은 ‘신체 돌봄 중심형’으로 아이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자녀를 목욕시키거나 옷 입히는 행위, 재우기, 밥 먹이기 등 신변정리 및 위생 및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유형을 구분한 결과 전반적 비참여형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40.7%가 취업모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녀돌봄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주당 노동 시간이 평균

44시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볼 때,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수치로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양육 부담 및 시간 압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여성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과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보다 나은 안정적인 심리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유형화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실제로 영유아 어머니들의 자녀돌봄시간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간사용 유형들 간의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형을 구분하는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타 돌봄 중심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아동의 연령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돌봄 중심형’보다 ‘기타 돌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영아기에는 부모가 신체를 돌보는 행위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반해, 유아기에 이르면서 자조 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전체 자녀돌봄시간 중 신체돌봄이 차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교육 기관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등하원 관리 및 기관 참여를 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신체 돌봄 중심형’보다 ‘기타 돌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놀이 중심형’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은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돌봄 중심형’보다 ‘놀이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아동이 발달할수록 놀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참여하는 놀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어 놀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놀이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를 통해 보았을 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자극 제공과 놀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와 함께 놀이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전반적 비참여형’유형은 맞벌이 여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 아동이 연령이 해당 유형을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놀이 중심형’이나 ‘기타돌봄 중심형’에 속하기보다는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맞벌이 가정일 경우 ‘놀이 중심형’이나 ‘신체 돌봄 중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함께 해석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남편이 55시간, 부인 4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근로시간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또한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적고, 자녀와 공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데에 투자하

는 시간의 전반적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체돌봄 중심형’을 구분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신체돌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고학력자의 경우, 자녀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염려나 걱정, 불안이 높고 관련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이 깊은 신체돌봄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Schneider, 1993)에 따르면 학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수집된 정보를 자녀 양육에 활용하고 적용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 비참여형’보다 ‘신체돌봄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 습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유형 사이의 시간사용만족감 및 시간 부족감을 살펴본 결과, 시간 부족감은 놀이중심형 유형과 전반적 비참여형 사이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시간사용만족감에서는 네 유형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시간사용만족감과 시간부족감이 개인이 하루 시간사용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를 주관적으로 지각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삶의 질 인식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시간사용의 경우, 개인의 성격 및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Kelly & Johnson, 2005), 일반적으로 스스로가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활주기나 성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편일 수 있지만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혹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부족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사용만족감의 경우 네 유형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부족감의 경우 일부 유형에서 차이가 발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네 유형 가운데 놀이중심형 유형과 전반적 비참여형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그 차이가 전반적 비참여형이 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모든 행위의 참여 시간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개인 및 가정의 특성이 월평균 소득이나 학력에 의해 해당 유형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와 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돌봄시간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을 때,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 중 전반적 비참여형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부족감 또한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나 근로의 강도가 과중한 경우 근로시간 외에 개인 및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과 가정 속에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녀양육에 부담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동 정책 및 보육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된 시간대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돌봄시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개인 및 가정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유형별 시간사용만족감 및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한 점에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녀돌봄시간 사용 유형별 아동발달의 차이에 대해 심

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아기와 유아기 어머니를 구분하여 시간사용 유형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서 얻은 결론 및 논의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활시간사용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간자원 사용이 삶의 질이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인 관계를 밝힐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생활시간연구에서는 개인의 시간 사용 패턴, 유형, 유형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서 시간이 가정 내 중요 자원 중 하나라는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시간자원이 개인 삶의 발달 및 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가족발달 및 아동발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주, 김진옥 (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6**(4), 35-62. doi:10.15709/hswr.2016.36.4.35
- 김소영 (2016).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1999년-2014년 생활시간 조사자료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 진미정 (2015).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71-88.
-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운진, 양미선 등 (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kor/bbs/bbs_download.jsp?idx=20061&filename=report031466480523916.pdf&download=h&code=report03&idx=20061에서 2018년 3월 2일 인출
- 김외숙 (201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33-152.
- 박은정, 이성립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손애리 (2000). 사례연구: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유희정, 이미화, 백혜리, 민현주, 이순영, 강민정 외 (2009). **2009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741&CONT_SEQ=306856&FILE_SEQ=156946에서 2018년 3월 2일 인출
- 장영애 (1997). 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학전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분석: 도시와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4), 15-30.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진미정, 이윤주 (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6), 43-56.

- 차성란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지하는 시간부족 및 피곤함에 대한 연구. *자연과학*, 16(1), 145-159.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7).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46959에서 2018년 3월 2일 인출
- 통계청 (2016. 11). **일자리 행정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bmode=read&aSeq=364774에서 2018년 3월 2일 인출
- 통계청 (2018. 3).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에서 2018년 3월 23일 인출
- Ahmeduzzaman, M., & Roopnarien, J. L. (1992). Sociodemographic factors, functioning style, social support, and fathers' involvement with preschoolers in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99-707. doi:10.2307/353255
- Bailey, W. T. (1993). Fathers' knowledge of development and involvement with preschool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7(3), 1032-1034. doi:10.2466/pms.1993.77.3.1032
- Booth, C. L., Clarke-Stewart, K. A., Vandell, D. L., McCartney, K., & Owen, M. T. (2002). Child-care usage and mother-infant "quality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6-26. doi:10.1111/j.1741-3737.2002.00016.x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doi:10.1086/228943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al Quarterly*, 26(1), 81-97. doi:10.1111/j.1533-8525.1985.tb00217.x
-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doi:10.1177/0891243205285212
- Del Bono, E. D., Francesconi, M., Kelly, Y., & Sacker, A. (2016). Early maternal time investment and early child outcomes. *Economic Journal*, 126(596), 96-135. doi:10.1111/eoj.12342
- Dowsett, C. J., Huston, A. C., Imes, A. E., & Gennetian, L. (2008). Structural and process features in three types of child care of children from high and low 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1), 69-93. doi:10.1016/j.ecresq.2007.06.003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 Hsin, A., & Felfe, C. (2014). When does time matte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time with parents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51(5), 1867-1894. doi:10.1007/s13524-014-0334-5
- Huston, A. C., & Rosenkrantz Aronson, S.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doi:10.1111/j.1467-8624.2005.00857.x

- Kelly, J. F., & Barnard, K. E. (2000). Assessment of parent-child interaction: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258-2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y, W. E., & Johnson, J. L. (2005). Time use effic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Education, 125*(3), 511-515.
- Marsiglio, W. (1991). Patern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973-986. doi:10.2307/353001
-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 Robinson, J. P. (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39-761. doi:10.1111/j.0022-2445.2004.00050.x
- Schneider, B. (1993).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An introduction. In B. Schneider & J. S. Coleman (Eds.),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1-12). New York: Westview Press.
- Schwartz, C. R., & Mare, R. D.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doi:10.1353/dem.2005.0036
-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doi:10.1177/0038038510369351
- Sullivan, O., & Gershuny, J. (2013). Domestic outsourcing and multitasking: How much do they really contribute? *Social Science Research, 42*(5), 1311-1324. doi:10.1016/j.ssresearch.2013.05.004
- Tamis-LeMonda, C., Shannon, J., Cabrera, N., & Lamb, M.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doi:10.1111/j.1467-8624.2004.00818.x
- Weiss, H. B., Mayer, E., Kreider, H., Vaughan, M., Dearing E., Hencke, R., & Pinto, K. (2003). Making it work: Low-income work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4), 879-901. doi:10.3102/00028312040004879

논문투고: 18.04.25
 수정원고접수: 18.05.18
 최종게재결정: 18.06.04